

고군택 KPGA 첫 2연패 도전

11일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출전 박상현·최승민·조우영·장유빈 등 개막전 우승 경쟁

시즌 3승을 올리며 지난해 화려한 비상을 알렸던 제주출신 고군택(25·대보건설)이 2024 시즌의 개막전에서 또다른 기록에 도전한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CC에서 열리는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대회 사상 첫 2연패와 2회 우승이라는 기록이다.



지난해 KPGA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고군택.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2014년부터 2019년, 2021~2024년까지 10회째 KPGA투어의 개막전으로 열린다.

이 대회에는 144명이 출격한다. 2라운드 종료 후 프로 상위 60명(동점자 포함)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시드 3년(2025~2027년)이 부여된다.

미개최)에서 모두 자기 다른 우승자를 배출했다. 대회 2연패 또는 2차례 우승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고군택은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거둔 대회이고 시즌 개막전이기 때문에 애정이 깊은 대회"라며 "대회 코스가 샷부터 퍼트까지 모두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코스다."

세밀한 코스 매니지먼트도 필요하다. 개막전에 맞춰 경기 감각과 체력 모두 끌어올릴 계획이다. 목표는 당연히 '타이틀 방어'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2020년 KPGA투어에 데뷔한 고군택은 데뷔 4년차인 지난 시즌 3승을 달성하며 만개했다. 개막전인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투어 첫 승을 이뤄낸 뒤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제39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차례로 정상에 올랐다.

2022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챔피언이자 현재 국내 통산 상급 1위인 박상현(41·동아제약)을 비롯 지난해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자 최승민(23·CJ),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조우영(23·우리금융그룹)과 장유빈(22·신한금융그룹), KPGA투어 QT에서 수석합격을 차지하며 올 시즌 투어에 데뷔하는 송민혁(20) 등도 개막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리올 파크에서 열린 MLB 워싱턴과의 경기 3회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좌익수 쪽으로 타구를 보낸 뒤 2루에 도달하고 있다.

이정후, MLB 첫 2루타 포함 멀티 히트

불넷까지 얻어 MLB 개인 두 번째 '3출루 경기'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첫 2루타를 만들며, 세 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했다. 이정후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리올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를 공략해 시속 158km 타구를 좌익수 쪽으로 보냈다.

원커가 몸을 던졌지만, 공은 그라운드에서 먼저 떨어졌다.

이정후는 2루까지 내달려, MLB 개인 첫 2루타를 만들었다. 3월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첫 홈런을 친 이정후의 개인 두 번째 장타이자, MLB 열 번째 안타이기도 하다.

이정후는 3월 30일 샌디에이고전(5타수 2안타), 4월 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4월 2일)에 이어 MLB 세 번째 멀티 히트를 작렬했다.

멀티 히트에 이어 불넷까지 그려내며 이정후는 4월 1일 샌디에이고전(2타수 무안타 3볼넷)에 이어 개인 두 번째 '3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K리그1 최고령 감독은 제주Utd 김학범

최연소 대구 최원권 감독과 22살차... 평균 51.8세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사령탑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보다 세 살 많아진 51.8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9일 기준 2024시즌 K리그1 각 사령탑의 평균 나이는 51.8세로 조사됐다.

2022시즌 49.2세, 2023시즌 48.8세였던 K리그1 감독 평균 연령은 올 시즌 1960년생으로 최고령 사령탑인 김학범 감독이 제주 유니타이트 지휘봉을 잡으면서 상승했다.

김학범 감독과 최연소 감독인 1981년생 최원권 대구FC 감독의 나이 차는 22세다.

K리그2의 감독 평균 연령은 49.9세로, 최고령 충북청주의 최운겸(1962년생) 감독과 최연소 수원 삼성의 엄기훈(1983년생) 감독도 스

무 살 차이가 난다.

K리그1 사령탑 중 K리그 감독 경력이 가장 긴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이다.

2015년 1월~2019년 4월 제주(4년 3개월) 지휘봉을 잡았던 조성환 감독은 2020년 8월부터 인천을 이끌며 8년 1개월째 K리그 구단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인천을 3년 9개월째 이끄는 조성환 감독은 현역 최장수 K리그1 사령탑이기도 하다.

K리그 감독 경력 2위는 7년 9개월의 김학범 제주 감독이고, K리그1 사령탑의 평균 경력은 3년 6개월이다.

K리그2에서는 충북청주의 최운겸 감독의 K리그1 사령탑 경력이 11년 5개월로 가장 길었다.

최운겸 감독은 K리그1 사령탑 경력 역대 1위인 최강희 산동 타이산(중국) 감독의 11년 11개월 14일에 도전한다.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은 K리그1 감독 중 가장 높은 통산 승률을 기록 중이다.

단, 올 시즌 K리그1 사령탑에 처음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과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을 제외할 수 있다.

인천의 조성환 감독은 K리그1 통산 최다승(109승) 감독이다.

통산 121승의 김학범 감독은 승강제 시행 이전에 84승을 올렸다.

2022시즌, 2023시즌 울산을 K리그1 2연패로 이끌고 K리그 감독상을 받은 홍명보 감독은 역대 감독상 최다 수상 2위에 도전한다.

역대 K리그 감독상 수상 1위는 최강희 감독의 6회다. 박정환, 차경복 전 감독이 3회 수상으로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한국 15년 만에 근대5종 국제대회 개최

근대5종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이 15년 만에 국제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근대5종과 아시아근대5종연맹은 11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일대 에서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연다.

국내에서 근대5종 국제 대회가 열리는 건 2009년 서울에서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겸해 개최된 코리아 오픈 대회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대회엔 개최국 한국을 필두로 14개국 200여명이 출전, 성인과 19세 이하(U-19) 부문으로 나뉘어 개인전, 단체전, 혼성 계주 종목의 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특히 이번 대회엔 아시아선수권 대회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경기가 도입된다.

장애물 경기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 때 승마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대체할 종목으로 2022년 채택돼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 시흥을 앞두고 각종 대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엔 16일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어지는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3차 대회를 앞둔 전주(광주광역시청), 서창완(전남도청), 김선우(경기도청), 성승민(한국체대) 등 국가대표 1진급 선수는 출전하지 않는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특집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안국경 8:25 아침미팅 9: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특집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필도방송 10:40 전국노래자랑(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 7:00 TV 유채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10:00 인안국경 스페셜 10:40 신상출시 편의점 스페셜 11:50 사랑남 귀는 댕나귀 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세 번째 결혼(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1:40 12 MBC 뉴스	6:00 특집 모닝와이드 1부 6:25 특집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TV 동물농장(재) 9:55 특집 SBS 10 뉴스 10:30 덩치 서바이벌 막혀버(재)	8:20 웃기는 처음 영어 9:50 뽕쟁쟁부 부부맨 9:20 인기가 되자! 12:10 민국 권문록 15:15 강산수의 정자 수업 16:50 도미미 프렌즈 쇼츠 17:4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8:10 EBS 뉴스 19:20 고희한국
12: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특집 KBS 뉴스 12 13:10 이웃집 찰스(재) 14: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특집 KBS 뉴스 14:15 가요무대(재) 15:10 반려동물극장(재) 16: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표방송 제1부 17: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표방송 제2부	13:30 불후의 명곡 스페셜 14:40 일화드라마 15:55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재)	12:0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3:55 특집 2시 뉴스 외전 16:30 선택 2024 1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표방송	12:00 SBS 12 뉴스 12:50 글 때리는 그녀들(재) 14:00 특집 뉴스브리핑 16:00 2024 국민의 선택 1부 17:00 2024 국민의 선택 2부	7:30 문화카페 9:00 KCTV 뉴스 9:20 KCTV 스페셜 10:20 청성혁명 11:00 KCTV 뉴스 11:20 신안민들 13:30 제주국제관광제 15:30 문화카페 17:00 선택 2024 총선 대표방송 19:00 선택 2024 총선 대표방송 21:00 선택 2024 총선 대표방송
18:3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대표방송 19: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표방송 제3부 20:00 제주 대표방송 20:25 대표방송 제3부 21: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특집 KBS 뉴스 9 21:4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대표방송 22: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표방송 제4부 22:40 제주 대표방송 22:55 대표방송 제4부 23:30 제주 대표방송 23:45 대표방송 제4부	18:35 2TV 생생정보 19:50 피도 눈물도 없이 20:30 반려동물극장 스페셜 20:55 월화드라마 22:10 스노우퀸 23:10 아이 러브 스포츠 23:35 반려동물극장(재)	19:40 선택 2024 2부 MBC 뉴스데스크 21:50 선택 2024 3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표방송 23:40 선택 2024 4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표방송	19:40 2024 국민의 선택 3부 20:20 2024 제주의 선택 특집 JIBS 8 뉴스 20:50 2024 국민의 선택 4부 23:00 2024 국민의 선택 5부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장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민가요 17:00 시사메거진 제주 17:30 자녀종합뉴스 18:00 한평순부 20:00 CBS 뉴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p>제주CBS FM 93.3MHz 90.3MHz</p> <p>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3MHz</p> </div> <div> <p>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메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p> </div> </div>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대표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저단(祖傳)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일로 약속이 있거나 연락이 온다. 48년 마음이 편하면 재상이 풍요롭다. 60년 매매 사업 등에 희망이 보이지만 자녀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72년 하는 일에 장애가 오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가 된다. 84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목 또는 길사가 찾아온다.
	42년 청춘때 때에 따라 에너지로 만든다. 청춘을 많이 하면 좋다. 54년 자녀 또는 남편문제도 고민이 쌓인다. 66년 흉운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 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78년 이별의 시간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도 나를 맞이한다. 90년 문서 매매에 유리하고 행운이 북적이 있다.
	37년 약속이 생기면 먼저 도착해 마중하면 나를 존경한다. 49년 과식이나 과음은 금물. 건강을 챙겨야 한다. 61년 집안에 애·경사로 참석하나 부부간에는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 73년 업무나 직장에서는 원만하다. 형제 자매 일에는 불화가 생긴다. 85년 결정할 일이 생기면 머무지 말고 신속해야 유리하다.
	38년 담이 생기거나 기침이 많이 나니 건강을 신경써야 한다. 50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62년 이는 게 힘이나 부족함을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한다. 74년 가족간에 화합도 필요하고 경제적 참중도 중요하다. 86년 친구나 선택을 찾아가 나의 고민을 알려보자. 행운은 동쪽.
	39년 자녀가 찾아오고 수업이 생기는 날. 51년 문서계약 시에 언쟁이 따르니 조심. 63년 학원일, 도서판매나 건강은 주의해야. 69년 전문업은 활기가 오니 부하직원 격려 필요. 81년 취직 승진 또는 창업 등에 길한 운이니 외부활동에 지중할 것. 93년 현재 결심이나 재물이 모이지 않아도 기다리면 나아진다.
	40년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겨 귀가 후 다시 외출하게 된다. 52년 자존심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 얻는 것이 생긴다. 64년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나 할 일이 많아지니 오직 내 일에만 전념하라. 76년 집안에 안부 전화가 필요. 우환이나 질환이 찾아올까 생각해 낫다. 88년 집중력이 생기는 시간을 활용하라.
	41년 영업에 이익은 있지만 변화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53년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거나 논쟁은 나를 옹졸하게 만든다. 65년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해야. 77년 용감한 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89년 친구들과의 약속이 이중으로 겹쳐지고 고민도 생긴다.
	42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9년 이득수가 생기니 동생이나 유리하고 얌따가 귀인에 해당한다. 71년 행운이 서쪽에서 오고 동업자가 생기기도 한다. 83년 이성교제나 소개팅이 왜든 고민하게 된다. 95년 친구나 이웃과 친목 또는 어울려야 좋다.